

# “지역사회의 에너지절약문화를 힘껏 이끌겠습니다”

■ 김인숙 기자(kis@energycenter.co.kr)

지난해 대규모의 ESCO사업을 실시한 전북대학교와 국내 최대 ESCO사업장으로 꼽히는 팬아시아페이퍼코리아 등이 위치한 전북지역은 눈에 띄는 ESCO사업이 다채롭고, 섬유 및 제지산업을 중심으로 한 에너지다소비사업체의 에너지절약 움직임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지역이다. 에너지관리공단 전북지사는 전북지역에 위치한 산업체 뿐 아니라 건물과 가정·수송분야에서도 에너지절감활동의 든든한 동반자 역할을 다하고 있으며, 오중구 전북지사장은 이러한 역할의 선봉장을 맡고 있다. 지역 에너지절약을 위해 다양한 지원에 나선 전북지사의 앞으로의 활약이 기대된다.

에너지소비패턴에 따라 그에 적절한 절약방안이 마련될텐데 지역내 에너지사용실태와 그에 따른 지사의 활동내용을 소개해주시시오.

전국 인구의 4.3%인 200만명이 거주하는(2002년말 기준) 전북지역에서는 연간 약 437만3천toe의 에너지를 소비하고 있으며 이는 전국의 약 3% 수준입니다. 분야별로는 제조업이 43%로 가장 에너지소비율이 높고, 가정·상업 29%, 수송 27%, 공공·기타 1% 순으로 산업부문이 다소 높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에너지원별로는 석유소비량 비중이 71%로 높은 수준이며 도시가스 사용량이 계속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연간 30,000toe 이상의 에너지다소비사업장 18개 업체가 이 지역 산업부문 에너지사용량의 75%인 189만3천toe를 사용하고 있고, 특히 대표적인 에너지다소비사업장으로 꼽히는 제지 및 섬유산업이 발달하여 집중적인 에너지관리를 필요로 합니다. 이에 저희 지사에서는 에너지다소비사업장에 대하여 에너지정밀진단을 통해 절감요인을 발굴하고 그 결과에 따라 폐열회수, 고효율 설비 등 다양한 에너지절약기술을 소개하고, 기술적 지원과 자금지원을 통해 적극적인 에너지절약시설 개선투자를 유도해나가고 있습니다.

전북지역에서 추진됐던 주요 ESCO사업 및 에너지절감활동의 내용과 그 의미에 대해 말씀해 주신다면?

ESCO사업이 산업체를 비롯해 학교, 병원, 공공기관 등을 중심으로 해마다 확산되는 추세입니다. 지난해 350억 규모의 ESCO사업을 실시한 전북대학교와 국내 최대 ESCO사업장으로 꼽히는 팬아시아페이퍼코리아 등 눈에 띄는 ESCO사업이 다채롭습니다.

또한 섬유 및 제지산업을 중심으로 한 에너지다소비사업장과 대형건물의 에너지절약 움직임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휴비스 전주공장의 경우 흡수식 냉동기 교체 및 응축수 출구제어 등에 17억6천만원, 원광대학교는 공조냉방설비 교체 등에 30억원을 투자하는 등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과 자체자금으로 에너지절약시설에 투자하는 사례가 늘고 있으며, 투자규모도 대형화되는 양상을 보입니다. 이는 고유가시대에 기업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에너지절감이 필수불가결한 요소라는 점이 많은 경영진들에게 폭넓게 인식되고 있음을 확인시켜주며, 이같은 추세는 국가에너지절약차원에서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될 수 있을 것입니다.

최근 이라크전쟁으로 인한 에너지비상대책은 어떻게 실천되고 있는지요?

정부가 최근 에너지 대책을 총괄할 비상체제에 돌입함에 따라 시·도 관계기관의 협조를 얻어 에너지사용 제한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네온사인 및 옥외조명 제한과 영업시간 단축 등 일부 강제적인 대책이 시행되고, 유가가 33달러를 넘어설 때는 승용차 강제10부제도 전면시행할 예정이며, 이러한 조치들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리고 생활속에서 에너지절약을 실천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한편, 최근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전기 및 난방 에너지 절약

폐열회수와 에너지 다소비 공정 개선, 신제조 공법 도입 등을 통해 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산업체 에너지절약을 적극 유도할 계획입니다. 특히, 자금여력이 없는 기업들에게는 ESCO사업을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에너지다소비업체에 대한 지속적인 기술지도를 해나가고자 합니다.

10% 이상 실천 가정에 일정 금액을 현금으로 보상하는 '캐시백(Cash Back)제도'에 서울·경기지역을 제외하고 가장 많은 가구가 참여할 정도로 지역내 에너지절약 동참 열기가 뜨겁습니다.

올해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계획은 무엇입니까?

진단사업에 역점을 두고, 폐열회수와 에너지 다소비 공정 개선, 신제조 공법 도입 등을 통해 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산업체 에너지절약을 적극 유도할 계획입니다. 특히, 자금여력이 없는 기업들에게는 ESCO사업을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에너지다소비업체에 대한 지속적인 기술지도를 해나가고자 합니다. 또한 강의와 매체를 활용한 에너지절약 홍보활동을 비롯해 세대별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만들고 싶은 지사의 모습과 각오에 대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기업과 시민들이 늘 필요로 하는 친근한 지사를 만들기 위해 민원편의 위주의 업무개선활동과 서비스향상에 더욱 노력할 것이며, '지역에너지절약센터'로서 지역사회의 에너지절약문화를 힘껏 이끌겠습니다. e

오중구 전북지사장은 80년 1월 에너지관리공단에 입사한 이후 15년동안 진단사업단에 근무하면서 산업현장의 에너지절약 처방전을 제시하는 역할을 수행하였으며, 지난 1월부터 에너지관리공단 전북지사를 이끌고 있다.

